



연 세 대 학 교

수신자 총여학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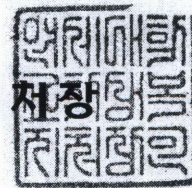
(경유)

제 목 보건비 사용내역 및 건강센터 재정내역 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

1. 총여학생회 제2011-05-01호 관련입니다.
2. 보건비는 전액 건강센터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보건비 및 건강센터 재정에 대한 문의는 총학생회에서 2010년 12월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첨부내용 중 “2.보건비 사용내역”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건강센터 송신 공문 1부. 끝.

연세대학교 학생복지



기안자 이경민

학생지원팀 유승석
장

학생복지부 김몽수
처장

학생복지처 05/09
장 안강현

협조자

시행 학생지원팀-373 (2011.05.09.)

우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화 5121

전송 02)2123-8615

접수

/ <http://www.yonsei.ac.kr>

/ km0118@yonsei.ac.kr

/ 공개

건강센터 리모델링 및 운영 계획 요청 관련 보고

1. 학생회관 리모델링 시 공간 확충 이외의 건강센터 운영 개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2005년 기획실 주관으로 보건진료소 개선위원회 회의 결과 현 운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필요성은 충분하나 향후 보건에 대한 학교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며, 현재의 제한된 재원으로서는 적정 운영 상태임.
- 건강센터 옆에 연세의료원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1) 내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 개설 계획이 있는 지 여부

현재 가정의학 전문의 진료로 충분하나 세부 전문의의 진료는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학교측과의 논의가 필요함.

2) 치과 진료를 충치치료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학교측과의 논의가 필요함.

3) 정규직 의료인원 충원 계획이 있는 지 여부

장기적으로 건강센터가 가야할 길이나 자원 계획이 있어야 하며, 현재 운영은 보건비와 진료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와 세부 논의가 필요함.

진료수입은 건강센터 이용자의 공제회 부담률에 따른 부담금과 본인부담금(학생과 교직원)이고, 모두 제한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를 확대시키는 것은 의료보험혜택이 안되므로 비효율적임.

4) 의료시설 관련 X-RAY시설 등 확충 계획이 있는 지 여부

X-RAY 장비가 디지털화 됨에 따라 새로운 기계 구입과 방사선기사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 효율성이 떨어짐.

2. 보건비 사용내역

보건비는 1995년 2학기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고, 2003년 1학기에 7,000원으로 인상된 후, 2006년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으로 등록금과 연동하여 인상하도록 결정되어 2007년1학기부터 현재까지 7,600원임.

자율운영기관인 건강센터의 재정은 보건비와 진료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사용내역은 건강센터 운영비(직원급여, 관리운영비, 진료재료비 등)에 사용되고 있음.

■ 건강센터 의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학교내에 의료기관 개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건강센터의 진료수준을 높이면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고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본인부담을 줄 일 수 있으나, 건강센터는 보험청구가 불가능하여, 모두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건강관리 및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옆에 연세의료원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의료원의 진료 내용은 건강센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검사 및 장비를 이용한 진단 치료등의 확장이 비용·효과면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됩니다.